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 및 지원요구

이 현 지

태 진 미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기타(영어유치원 및 놀이학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설문지는 총 309부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기관 등의 유아교육기관에는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유아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 경험’이 세 기관 모두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도는 세 기관 모두 필요수준에 비해 현재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영재 대상으로 교육적 요구와 발달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교육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유아영재교육, 차별화 교육, 통합교육

I. 서 론

지금까지의 영재성 정의는 다양하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인하여 높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미성취영재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아직 발현하지 못한 영재까지도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전미란, 2014). 영재성의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을 제시했던 Sternberg(1998)는 영재성을 수월성, 희귀성, 생산성, 검증 가능성 가치성 등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영재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생후 초기단계인 유아기의 영재성을 규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유아기는 영재성의 여부를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판별을 한다 할지라도 재능이 영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한기순, 2006). 최근 영재성에 대해 천부적인 특별한 능력(gifts)이라는 ‘확정적’ 개념을 지양하고(Montgomery, 2013) ‘영재성의 징

교신저자: 태진미(jmtae91@hanmail.net)

*본 논문은 2016년 이현지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후가 있는 아동’ 혹은 매우 능력 있는(highly able), 뛰어난 능력(high ability)이라는 ‘발달적’ 속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재성에 대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유아기의 영재성에 대해 연구했던 학자들은 유아기는 발달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이며, 특정 분야에 대한 두뇌 신경망이 습관화되는 시기로서 유아기의 경험은 향후 영재성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Hertzog, 2013). 유아기에 흥미와 강점, 능력 수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도전적 교육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영재성의 형성 및 발현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영재성의 발현을 위해 유아기부터의 적절한 개입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Rimm, 2001; Winner, 1997).

미국영재학회는 K-12 영재교육기준(Gifted Program Standards)을 설정해 제시하며 각 연령 단계에서 영재를 위한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 서비스(continuum of service)’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행정가나 교사, 학부모들이 영재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실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각 학생에 맞는 최적의 학습경험을 조성하도록 돕는 지속적 지원을 말한다.

한편 현재 국내의 공식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송규운, 2008; 한기순, 2006; 황희숙, 류지영, 2011).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영재성을 만들 수 있다는 상업적인 광고가 만연해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노출되어 과도한 학업 경쟁에 시달리는 부정적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이경화, 박숙희, 2010;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 2014). 유아기의 영재교육과 관련해 유아영재들의 특성(김지혜, 2014; 김형재, 홍순옥, 2011; 이채호, 최인수, 2012), 제도적 미비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김재환, 2005; 박경선, 이경화, 2011; 송규운, 2008; 이상희, 최선일, 2015) 및 유아대상의 영재교육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설문하는 연구들(김승희, 김승희, 2016; 김정숙, 2005; 박은실, 2005; 엄시내, 2006; 이선애, 2006;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 2014)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유아영재교육에 관한 제도 마련 및 유아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나,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의 영재교육 역시 정규교육과정인 아닌 ‘별도의 특별 과정’으로서 논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정규교육 밖으로 빼내서 진행하는 형태(pull out)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 ‘차별화’ 패러다임(The Differentiation Paradigm)의 영재교육이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이다(Dai & Chen, 2013). 모든 학생들은 능력수준과 관계없이 일반 교육기관의 교실에서 보통의 학생들과 대부분의 학습시간을 보내야 한다. 굳이 영재가 아니라도 모든 학습자는 각 학습자가 지닌 개인차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지적이고 학습자 본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규(일반)교육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발달의 불균형이 클 수 있는 유아기의 영재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지적으로 우수하고 창의적인 자율적 학생들에게 기능미달(underfunctioning) 결과가 자주 발견되는 현상은 조숙한 상위학습자의 비동시적 발달특성 및 세밀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활동이 평상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다(Montgomery, 2013). 특히 이 문제에 대해 Matthews와 Foster(2006)

는 특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영재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교육과정이 개별 학생에게 적절하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면(부조화) 교육과정에서의 부조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차별화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개념화해야 한다고 했다. Borland(2003)도 같은 맥락에서 영재교육의 존재 자체가 ‘차별화’ 교육을 지향한다고 했고, Tomlinson(2004) 역시 차별화 교육이야말로 영재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차별화 교육이란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과 수준, 요구를 고려해 학습자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수업전략을 수정하고 선택하는 교육으로, 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은 영재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진단·처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어린 영재학습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재교육을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운영해야하는 특별한(예, 학교 밖, 방과 후) 교육이라는 인식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영재학습자들에게 무의미하거나 기능미달 양상을 증폭시키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교사들 역시 어린영재의 지도는 별도의 영재교사만 하는 것이고 평상시 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간헐적 차원의 영재교육만이 아닌 일반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평상시 정규(일반)수업활동 속에서 영재학생의 특별한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차별화교육을 실현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유아기 영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아영재를 위한 교육은 제도권 안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되는 경우 사교육기관에서 고가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개별적으로 수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김형재, 홍순옥, 2011), 그러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질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조은영, 2014).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학부모를 현혹하기 위해 영재, 천재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영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오직 지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사교육의 난무 가능성이 크다(김재환, 2005; 송정민, 2008; 조은영, 2014). 이러한 양상은 자칫 유아영재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협한 인지교육으로 편중된 왜곡된 영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린 유아영재들이 유아교육기관 밖을 떠돌며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에 노출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유아영재의 재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며 영재성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른 시기 잘못된 영재교육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에서 진보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차별화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발달하고 재능도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반유아들 사이에 있는 소수의 유아영재도 유아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발달특성과 수준에 맞는 차별화(개별 맞춤형) 수업을 수혜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재능이 일반유아들과 잘 어우러져 건강하게 소통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민의 교육 기본법 실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실 있는 유아영재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실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조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해 이를 확인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3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직업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40대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의 교사가 많았다. 영재교육에 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혀 없거나 자율(개인)연수를 통해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 내 교육과정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영재교육에 관해 알게 된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최근 유아교원양성 과정에서의 커리큘럼 확장 및 방송매체를 통한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시청과 연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인		유치원 N(%)	어린이집 N(%)	기타 N(%)
성별	남성	0(0)	0(0)	2(100)
	여성	100(32.6)	108(35.2)	99(32.2)
연령	20대	46(40.7)	37(32.7)	30(26.5)
	30대	38(38.4)	37(37.4)	24(24.2)
	40대	15(20.0)	25(33.3)	35(46.7)
	50대	1(4.5)	9(40.9)	12(54.5)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57(39.0)	52(35.6)	37(25.3)
	대학교 졸업	35(35.0)	44(44.0)	21(21.0)
	대학원 재학	3(7.7)	2(5.1)	34(87.2)
	대학원 졸업	5(31.3)	4(25.0)	7(43.8)
교직 경력	기타	0(0)	6(75.0)	2(25.0)
	5년 미만	46(35.4)	42(32.3)	42(32.3)
	5~10년 미만	32(33.0)	43(44.3)	22(22.7)
	10년~20년 미만	20(32.8)	15(24.6)	26(42.6)
영재교육에 관해 알게 된 경로	20년 이상	2(9.5)	8(38.1)	11(52.4)
	학부 내 교육과정	15(34.9)	6(14.0)	22(21.8)
영재교육에 관해 알게 된 경로	보수교육	3(14.3)	8(38.1)	10(9.9)
	자율(개인) 연수	13(39.4)	10(30.3)	10(9.9)
영재교육에 관해 알게 된 경로	전혀 없다	63(32.3)	83(42.6)	49(48.5)
	기타	6(35.3)	1(5.9)	10(9.9)

*기타: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정규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과 같은 소수정원의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말함.

2. 설문지 개발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의 개발 및 재구성을 통해 직접 제작하였고 관련분야 교수 3인과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10명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문항은 유아영재대상의 교육실태 및 요구도로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세부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영역	번호	문항내용	문항 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인식	1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	6
	2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	
	3	공교육 차원의 유아영재교육 필요성	
	4	유아영재의 특성	
	5	유아기관 내 차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	
	6	유아기관 내 전문적 지원 서비스	
실태	7	유아영재 출현율	12
	8	유아영재성의 분야	
	9	유아영재 지도의 어려움	
	10	(차별화 교육 관련) 기관장의 관심 및 실천 의지	
	11	(차별화 교육 관련) 교사의 관심 및 실천 의지	
	12	(차별화 교육 관련) 학부모의 관심 및 요구	
	13	(차별화 교육 관련) 전문 인력 보유 실태	
	14	(차별화 교육 관련) 지침이나 관리규정 보유 실태	
	15	(차별화 교육 관련) 정보제공 수준	
	16	(차별화 교육 관련) 수업자료의 구비 정도	
차별화 교육 요구	17	차별화교육 경험	12
	18	(차별화 교육 관련) 전문 연수 참여 의사	
	19	(차별화 교육 관련) 직전교육 필요성	
	20	(차별화 교육 관련) 보수교육 필요성	
	21	유아영재 판별 관련 전문성	
	22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	
	23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24	상담 관련 전문성	
	25	(차별화 교육 관련) 교재와 교구 구비의 필요성	
	26	(차별화 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	
	27	(차별화 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28	(차별화 교육 관련) 보조 인력 필요성	
	29	(차별화 교육 관련)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	
	30	(차별화 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합			30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문항별로 분류하여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아영재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응답에 대해서는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인 유아교사의 요구도 분석을 위해 현재수준과 필요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교육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조대연(2009)이 논문에서 소개한 Borich 요구도 분석을 적용하여 요구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필요정도와 현재정도는 대응표본 *t* 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ANOVA를 활용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text{요구도} = \frac{\{\sum(RL - PL)\} X \overline{RL}}{N}$$

RL : 필요 수준
 PL : 현재 수준
 \overline{RL} : 필요 수준 평균
 N : 전체 사례 수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관련 인식 실태

가. 유아영재 특성에 대한 인식

어떤 특성이 있는 유아를 유아영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영재 특성에 관한 기관별 인식 실태

응답내용	기관 유형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다른 유아에 비해 발달이 빠른 아동	6(6.0)	11(10.2)	9(8.9)	26
유아 지능이 높은 아동	12(12.0)	10(9.3)	15(14.9)	37
영재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동	81(81.0)	83(76.9)	71(70.3)	235
경험 창의성이 뛰어난 아동	24(24.0)	40(37.0)	26(25.7)	90
빈도 기타	1(1.0)	0(0)	1(1.0)	2
합계	100	108	101	309

() = %

3가지 기관의 교사들이 모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동’을 유아영재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창의성이 뛰어난 아동’이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지능이 높은 아동’을 영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재성에 대한 이

해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유아영재 출현율에 대한 인식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영재 출현율을 조사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관별 유아영재의 출현율을 보면 ‘유치원’은 ‘2~4명’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가 37.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어린이집’에서는 ‘없다’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명’이 24.1%, ‘1명’이 15.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다수가 유아영재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타’기관에서는 ‘2~4명’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없다’가 23.8%, ‘5명 이상’이 17.8%, ‘1명’이 15.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영어유치원 및 놀이학교)기관 교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영재를 만났다고 답한 사례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더 크더라도 기타기관이 전문적인 영재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따른 교육기관 선택 현상과 연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유아영재 출현율에 대한 기관별 인식 실태

응답내용 () = %	기관 유형			전체	χ^2	p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유아 영재 없다	37(37.0)	61(56.5)	24(23.8)	122(39.5)	30,555	.000
1명	16(16.0)	17(15.7)	16(15.8)	49(15.9)		
경험 2~4명	38(38.0)	26(24.1)	43(42.6)	107(34.6)		
빈도 5명 이상	9(9.0)	4(3.7)	18(17.8)	31(10.0)		

N=309, ()=%

다. 유아기 영재성의 출현 분야에 대한 인식

교사들에게 유아영재들이 보였던 영재성의 발현 분야를 설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기 영재성의 출현 분야에 대한 기관별 인식 실태

응답내용	기관 유형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유아기 영재성의 출현 분야	언어	32(50.8)	27(56.3)	55(71.4)	114
	수학	21(33.3)	10(20.8)	24(31.2)	55
	과학	21(33.3)	12(25.0)	13(16.9)	46
	미술	26(41.3)	23(47.9)	38(49.4)	87
	음악	11(17.5)	8(16.7)	17(22.1)	36
	기타	3(4.8)	4(8.3)	2(2.6)	9
합계	63	48	77	188	

()=%, 중복표기 허용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모두 ‘언어’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술, 수학, 과학, 음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답한 비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경험했던 유아영재성의 분야가 주로 언어, 미술, 수학, 과학, 음악, 기타의 순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라.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교육기관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고 Scheffe를 이용해 사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평균이 $M=3.64$ 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기관의 평균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이 $M=3.55$ 로 보통보다 높았으며 세 기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표 6 >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기관별 인식 실태

구분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s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	유치원(a)	100	3.58	.755	4.724	.010	c>a,b
	어린이집(b)	108	3.52	.791			
	기타(c)	101	3.83	.775			
	합계	309	3.64	.784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	유치원(a)	100	3.51	.745	.879	.416	
	어린이집(b)	108	3.50	.803			
	기타(c)	101	3.63	.857			
	합계	309	3.55	.803			
공교육 차원의 유아영재교육 필요성	유치원(a)	100	3.61	.695	1.646	.195	
	어린이집(b)	108	3.59	.670			
	기타(c)	101	3.76	.838			
	합계	309	3.65	.738			
유아기관 내 전문적(차별화) 교육의 필요성	유치원(a)	100	3.67	.682	1.843	.160	
	어린이집(b)	108	3.71	.737			
	기타(c)	101	3.85	.684			
	합계	309	3.74	.704			
유아기관 내 전문적(차별화) 지원 서비스의 수준	유치원(a)	100	2.19	1.042	16.594	.000	c>a>b
	어린이집(b)	108	1.75	.948			
	기타(c)	101	2.56	1.081			
	합계	309	2.16	1.074			
유아영재 지도의 어려움	유치원(a)	100	3.11	.920	.339	.712	
	어린이집(b)	108	3.19	.929			
	기타(c)	101	3.22	1.006			
	합계	309	3.17	.950			
(차별화교육 관련) 기관장의 관심 및 실천 의지	유치원(a)	100	2.90	.835	.355	.702	
	어린이집(b)	108	2.79	1.086			
	기타(c)	101	2.80	1.166			
	합계	309	2.83	1.038			

(차별화교육 관련) 교사의 관심 및 실천 의지	유치원(a)	100	2.87	.734	2.950	.054	
	어린이집(b)	108	2.67	.736			
	기타(c)	101	2.61	.894			
	합계	309	2.72	.796			
(차별화교육 관련) 학부모의 관심 및 요구	유치원(a)	100	2.85	.730	8.881	.000	c>a>b
	어린이집(b)	108	2.51	.826			
	기타(c)	101	3.01	1.054			
	합계	309	2.78	.902			
(차별화교육 관련) 전문 인력 보유 실태	유치원(a)	100	2.07	.879	5.411	.005	a,c>b
	어린이집(b)	108	1.69	.826			
	기타(c)	101	2.02	.990			
	합계	309	1.92	.912			
(차별화교육 관련) 지침이나 관리규정 보유 실태	유치원(a)	100	2.18	1.077	3.902	.021	a,c>b
	어린이집(b)	108	1.82	.975			
	기타(c)	101	2.18	1.144			
	합계	309	2.06	1.075			
(차별화교육 관련) 정보제공 수준	유치원(a)	100	2.22	.927	4.224	.016	a,c>b
	어린이집(b)	108	1.93	1.048			
	기타(c)	101	2.31	1.007			
	합계	309	2.15	1.007			
(차별화교육 관련) 수업자료의 구비 정도	유치원(a)	100	2.42	.934	5.653	.004	a>c>b
	어린이집(b)	108	2.01	.826			
	기타(c)	101	2.25	.899			
	합계	309	2.22	.899			
차별화교육 경험	유치원(a)	100	2.33	1.035	3.454	.033	a,c>b
	어린이집(b)	108	2.03	1.115			
	기타(c)	101	2.41	1.159			
	합계	309	2.25	1.113			
(차별화교육 관련) 전문 연수 참여 의사	유치원(a)	100	3.61	.875	2.832	.060	
	어린이집(b)	108	3.34	.968			
	기타(c)	101	3.63	1.102			
	합계	309	3.52	.992			

‘공교육 차원의 유아영재교육 필요성’이나 ‘유아기관 내 전문적(차별화)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3가지 기관의 교사들은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유아기관 내 전문적(차별화) 지원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M=2.16$ 으로 전체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세 기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기타기관(놀이학교,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교육기관 내에서의 전문적(차별화) 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영재 지도의 어려움’, 차별화교육 관련 ‘기관장의 관심 및 실천 의지’, ‘교사의 관심 및 실천의지’, ‘학부모의 관심 및 요구’ 등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기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차별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보유 실태’, ‘지침이나 관리규

정 보유 실태’, ‘정보제공 수준’ 등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관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 인력 보유 실태’는 3가지 기관의 전체 평균이 $M=1.92$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기타 기관에 비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실태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차별화교육 관련 ‘수업자료의 구비 정도’, ‘차별화교육 경험’ 역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수업자료의 구비 면에서는 유치원, 기타기관, 어린이집의 순으로 차별화교육 경험은 기타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화교육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차별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실행을 위한 인프라가 유아교육현장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더욱 특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기대하고 보내는 비교적 고가의 기타기관 역시 차별화교육 실행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있지 않았고 3가지 기관 중에서도 어린이집의 경우는 특히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지원요구

가.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전체 교사의 지원요구

전체 교사들이 응답한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지원요구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전체 교사의 지원요구

하위요인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요구도	t	순위
	M	SD	M	SD			
직전교육 필요성	3.37	.860	2.21	.757	4.19	19.582 ^{***}	9
보수교육 필요성	3.32	.858	2.21	.799	3.68	17.701 ^{***}	11
관별 관련 전문성	3.39	.945	2.07	.765	4.45	19.445 ^{***}	5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	3.41	.873	2.18	.767	4.20	19.431 ^{***}	8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3.60	.842	2.42	.820	4.25	19.157 ^{***}	7
상담 관련 전문성	3.68	.844	2.37	.822	4.82	19.965 ^{***}	1
교재와 교구 구비의 필요성	3.50	.820	2.30	.808	4.19	19.231 ^{***}	10
전문기관의 필요성	3.48	.800	2.25	.767	4.27	20.088 ^{***}	6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3.42	.892	2.09	.746	4.53	20.315 ^{***}	3
보조 인력 필요성	3.38	.992	2.03	.781	4.58	19.701 ^{***}	2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	3.46	.850	2.40	.891	3.65	17.152 ^{***}	12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3.51	.881	2.23	.777	4.49	19.466 ^{***}	4

$N=309$, ^{***} $p<.001$

먼저 각 항목들에 대한 세 기관 교사들의 응답을 t 검정한 결과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에 평균이 모두 1점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현재의 수준이 필요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 값을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 ‘상담관련 전문성’이 4.82로 가장 큰 요구도를 보였고 ‘보조인력 필요성’과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관별 관련 전문성’,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영재를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함에 있어서 교사들은 ‘상담(유아, 부모) 관련 전문성’이나 ‘보조 인력’,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요구를 보이는 반면 유아영재를 직접 교육하기 위한 ‘직전교육’이나 ‘교재와 교구 구비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요구도의 순위 양상은 본인들이 유아영재를 직접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주로 상담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교육은 보조인력이나 전문인력의 배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유치원 교사의 지원요구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한 후 이에 따른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유치원 교사의 지원요구

하위요인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요구도	<i>t</i>	순위
	<i>M</i>	<i>SD</i>	<i>M</i>	<i>SD</i>			
직전교육 필요성	3.40	.711	2.11	.737	4.34	12.205***	1
보수교육 필요성	3.33	.726	2.23	.777	3.65	9.490***	10
관별 관련 전문성	3.37	.825	2.12	.808	4.23	10.410***	4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	3.33	.829	2.26	.774	3.64	9.698***	11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3.54	.771	2.48	.882	3.81	9.192***	8
상담 관련 전문성	3.61	.815	2.43	.868	4.34	9.758***	2
교재와 교구 구비의 필요성	3.45	.770	2.40	.876	3.67	9.354***	9
전문기관의 필요성	3.44	.686	2.33	.753	3.86	10.947***	7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3.29	.832	2.15	.796	3.89	10.353***	6
보조 인력 필요성	3.33	.911	2.07	.856	4.25	10.332***	3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	3.40	.816	2.50	.893	3.11	8.739***	12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3.39	.777	2.27	.737	3.93	10.234***	5

N=100, ****p*<.001

유치원교사들은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해 ‘직전교육 필요성’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상담 관련 전문성’, ‘보조 인력의 필요성’, ‘관별 관련 전문성’과 ‘학부모교육 및 지원 필요성’의 순으로 요구도를 보였다. 반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이나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직전교육을 통해 차별화 교육 관련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높지만 현직에서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요구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교사의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한 후 이에 따른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요구

하위요인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요구도	<i>t</i>	순위
	<i>M</i>	<i>SD</i>	<i>M</i>	<i>SD</i>			
직전교육 필요성	3.23	.903	2.03	.690	4.05	12.039***	10
보수교육 필요성	3.23	.860	2.05	.802	3.93	12.023***	12
관별 관련 전문성	3.35	.910	2.02	.710	4.52	13.424***	5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	3.34	.811	2.05	.741	4.42	12.910***	6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3.50	.837	2.29	.711	4.36	12.904***	7
상담 관련 전문성	3.61	.818	2.27	.793	4.94	12.841***	1
교재와 교구 구비의 필요성	3.44	.752	2.20	.680	4.31	13.427***	9
전문기관의 필요성	3.40	.710	2.15	.705	4.35	13.421***	8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3.37	.849	2.04	.669	4.56	12.475***	4
보조 인력 필요성	3.40	.947	1.97	.662	4.81	13.222***	3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	3.44	.752	2.30	.867	3.94	11.227***	11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3.53	.791	2.15	.695	4.84	13.138***	2

N=108, ****p*<.001

어린이집교사는 ‘상담관련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를 가장 높게 보였고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보조인력 필요성’,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 ‘관별관련 전문성’의 순위로 요구도를 나타냈다. 유치원교사들의 가장 우선순위 요구도가 ‘직전교육 필요성’이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지만 ‘상담관련 전문성’이나 ‘보조인력의 필요성’, ‘전문 인력의 배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양상은 유사하다. 어린이집교사는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을 위해 직전교육이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보다는 상담이나 학부모교육, 보조인력이나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기타 기관 교사의 지원요구

기타(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기관 교사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한 후 이에 따른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 관련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어린이집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담 관련 전문성’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 배치’와 ‘학부모교육 및 지원’, ‘보조 인력’, ‘전문기관의 필요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수교육’이나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직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기관 교사들 역시 본인들이 유아영재를 직접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주로 상담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교육은 전

문인력의 배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10>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을 위한 기타 교육기관 교사의 지원요구

하위요인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요구도	t	순위
	M	SD	M	SD			
직전교육 필요성	3.48	.934	2.23	.835	4.2042	9.949***	10
보수교육 필요성	3.40	.970	2.36	.795	3.4515	9.240***	12
관별 관련 전문성	3.44	1.090	2.08	.783	4.5983	10.242***	6
차별화 교육 전략에 관한 전문성	3.56	.963	2.24	.777	4.5242	11.181***	9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3.76	.896	2.50	.856	4.5624	11.356***	8
상담 관련 전문성	3.82	.888	2.42	.803	5.1739	12.100***	1
교재와 교구 구비의 필요성	3.61	.927	2.31	.857	4.5743	10.965***	7
전문기관의 필요성	3.59	.971	2.27	.835	4.6170	10.807***	5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3.59	.971	2.09	.776	5.1469	12.464***	2
보조 인력 필요성	3.42	1.116	2.04	.824	4.6517	10.680***	4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필요성	3.54	.975	2.43	.909	3.8711	9.765***	11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	3.60	1.050	2.27	.893	4.6916	10.536***	3

N=1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의 실태와 지원요구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의 하위 문항 중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영재’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동’으로 유영희(2014), 이선애(2006),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2014)의 연구에서 유아기 영재의 특성을 ‘한 분야의 탁월한 재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영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을 꼽았던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김승희, 김승희, 2016; 박맹숙, 박경희, 최호성, 2014; 이해은, 허우정, 2005).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과거에 Terman과 같이 지능검사 점수를 중심으로 영재를 판별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동’이나 ‘창의적인 아동’을 영재로 인식하는 등 영재성 개념이 많이 변화,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아기 영재성이 발현된 분야로 언어가 가장 높았으며, 미술, 수학, 과학, 음악,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영재가 일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언어’ 영역이 유아기 영재를 판별하는 대표적 특성 중의 하나(윤형주, 윤여홍, 2003; 이채호, 최인수, 2012; 최순실, 김복순, 한석실, 1995)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수·과학에 편중된 영재교육 인식 및 중요성 강조(송정민, 2008; 이선애, 2006)와는

달리 유아기의 경우 실제 교육현장에서 언어발달 측면에서 일반유아와 다른 탁월한 잠재력을 보이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대상의 영재 교육적 접근이 발달초기의 특성을 고려해(한기순, 2006; 한석실, 2005) 지나친 교과중심 접근보다는 언어 및 사고력 측면에서의 ‘포괄적 영재성 증진 전략’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기관의 교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차별화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편 ‘공교육 차원의 유아영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정숙(2005), 이혜은, 허우정(2005)의 연구와 유사했으나, 유아기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수준을 보고했던 신명자(2003), 엄시내(2006), 이선애(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관 내 전문적 지원(차별화) 서비스 실태’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차별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보유 실태’와 ‘지침이나 관리규정 보유 실태’, ‘정보제공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기관 등의 유아교육기관이 전반적으로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영재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영재교육 관련 자료 부족과 유아영재관련 전문가 부재, 정부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인 관리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던 선행연구들(김정숙, 2005; 엄시내, 2006; 이선애, 2006;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 2014)의 결과와 유사하다.

유아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 경험’에 대해 세 기관 모두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의 기타기관 역시 차별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희와 김승희(2016)의 연구에서 유아영재를 경험해 본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아영재에게 적합한 교육적 시도로서 영재유아를 위해 개별 난이도를 조정한 사례의 교사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했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조석희, 안도희와 한석실(2004)은 어린 시절 영재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갖고 성장·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후기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별화 교육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많은 유아교사들이 유아영재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영재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내용 및 방법 수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대상 차별화 교육에 관한 연수나 직전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 요구 조사결과 세 기관 모두 필요수준에 비해 현재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조인력 필요성’, ‘전문 인력 배치 필요성’,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필요성’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영재는 일반유아와 다른 발달 양상으로 인해 많은 양육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박은실, 2005; 태진미, 2009)와 일치한다. 유아영재를 상담하고 그 부모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담관련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엄시내(2006), 태진미(2012), 황희숙, 류지영(2011)의 연구 및 효율적인 유아영재 교육을 위해서 보조 인력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김지혜(2014), 유영희(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유아영재교육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유아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했던 송정민(2008),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2014)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고했던 김재환(2005), 유영희(201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영재교육 제도나 지원체제’와 같은 ‘제도적 차원’,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재 교구 구비’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차원’의 지원보다도 유아영재나 유아영재의 부모 상담을 위한 전문성 개발, 자신들을 조력해줄 보조 인력이나 전문 인력의 배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상담’ 및 ‘조력적 차원’의 지원 요구가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영어유치원, 놀이학교) 기관과 같은 국내 유아교육기관은 모두 유아영재의 발달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차별화 교육 경험에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일반 유아와 다른 발달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영재 대상 완전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유아영재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적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유아영재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차별화 교육 관련 연수나 직전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영재 출현 빈도 항목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기타기관이 유의하게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유아영재 대상의 차별화 교육 지원 정책 마련 및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공적 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아기관 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에 소속된 교사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유아와 다른 빠른 발달 및 독특한 흥미와 지적 수준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어려워 기타 기관에 취원하게 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공적 기관에만 한정된 지원 체제 마련으로 인해 자칫 기타 기관에 재원 중인 상당수의 유아영재들이 배제될 수 있음을 정책마련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교육 제도나 지원체제’와 같은 ‘제도적 차원’,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재 교구 구비’ 등과 같은 ‘물리적 차원’의 지원보다도 유아영재나 유아영재의 부모 상담을 위한 전문성 개발, 자신들을 조력해줄 보조 인력이나 전문 인력의 배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담’ 및 ‘조력적 차원’의 지원 요구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했던 ‘영재교육 제도의 수정’이나 ‘지원 체제 마련’ 등의 제도적 정비 혹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나 ‘교재 교구 구비’ 등의 물리적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그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들, 어려움, 의문 등에 대해 쉽게 상담하고 조력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서비스’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규 교육기관 내에서의 유아영재 대상의 효율적 차별화 교육을 위한 제도나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지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력적 차원’의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사들 스스로가 유아영재를 직접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주로 상담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질적 교육은 보조 인력이나 전문 인력의 배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본인들 스스로가 유아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구체적인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전, 보수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성 신장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관계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유아영재 대상 차별화 교육 실태와 요구를 알아본 연구이다. 이는 단순한 실태조사 연구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정규 유아교육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유아영재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전체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 연령,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영재 대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승희, 김승희 (2016). 영재유아와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경험. **유아교육연구**, 36(1), 5-36.
- 김재환 (2005). 유아영재교육 관련법에 대한 문제연구 -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영아교육·보육행정연구**, 9(2), 5-39.
- 김정숙 (2005).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지혜 (2014). **유아교육기관 생활에서 나타난 유아영재의 특성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형재, 홍순옥 (2011). 유아영재와 일반유아의 실행기능 영역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259-280.
- 박경선, 이경화 (2011). 유아동 영재교육의 동향. *Global Creative Leader*, 1(2), 34-53.
- 박맹숙, 박경희, 최호성 (2014). 유아 교육기관 교사의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 측정 도구 개발. **유아교육연구**, 34(6), 509-537.
- 박은실 (2005). **영재성과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송규운 (2008). 유아영재를 위한 통합교육의 실현성 진단. **영재와 영재교육**, 7(2), 179-199.
- 송정민 (2008). **유아 영재교육에 관한 교사, 학부모 인식조사 -울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신명자 (2003). **영재유아교육의 실태와 유치원 교사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엄시내 (2006). **영재의 특성 및 유아 영재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와 영재교사의 인식비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유영희 (2014).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운영자와 교사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윤형주, 윤여홍 (2003). 부모의 지각에 따른 유아영재의 비동시적 발달특성. **영재교육연구**, 13(1), 65-80.
- 이경화, 박숙희 (2010). **유아영재교육**. 서울: 동문사.
- 이상희, 최선일 (2015). 한국 영재교육 연구의 현황 및 성과: 2003-2012. **영재교육연구**, 25(6), 881-904.
- 이선애 (2006).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및 운영실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이채호, 최인수 (2012). 교사용 유아 영재성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영재교육연구**, 22(2), 483-497.
- 이현희, 유미현, 전유영 (2014). 공교육에서 주관하는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국공립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121-151.
- 이혜은, 허우정 (2005).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유아교육논총**, 14(1), 147-167.
- 전미란 (2014). 영재의 정의 및 특성. 박경빈 외 12인(공저). **한눈에 보는 영재교육** (pp. 11-40). 서울: 학지사.
- 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4). 영재의 후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특성 및 환경 요인. **교육심리연구**, 18(2), 123-141.
- 조은영 (2014). **한국의 영재 관련 도서 출판 현황 및 학습교재 개발자의 영재교육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순실, 김복순, 한석실 (1995).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 209-240.
- 태진미 (2009). 영재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영재교육연구**, 19(2), 303-332.
- 태진미 (2012). 아동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지식 향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적 우수아 사례 중심으로. **영재와 영재교육**, 11(1), 35-56.
- 한기순 (2006). 텔파이 조사를 통한 유아영재교육의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59-87.
- 한석실 (2005). 발달에 적합한 유아 영재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5-56.
- 황희숙, 류지영 (2011). 유아 영재 판별의 가능성 및 한계. **동북아 문화연구**, 27, 253-268.
- Borland, J. H. (2003). The death of giftedness. In J. H. Borland (Ed.). *Rethinking gifted education*

- (pp. 105-124).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Dai, D. Y., & Chen, F. (2013). Three paradigms of gifted education: In search of conceptual clarity in research and practice. *Gifted Child Quarterly*, 57(3), 151-168.
- Hertzog, N. B.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J. A. Plucker, & C. M. Callahan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pp. 211-222). Waco, Texas: Prufrock Press.
- Matthews, D. J., & Foster, J. F. (2006). Mystery to mastery: Shifting paradigms in gifted education. *Roeper Review*, 28(2), 64-69.
- Montgomery, D. (2013). **부모와 교사를 위한 미성취 영재아 교수전략**. [안도희, 진석언, 윤여홍, 전명남, 김경진 공역]. 서울: 학지사. (원본출간년도: 2000).
- Rimm, S. B. (2001). *Keys to parenting the gifted child* (2nd Ed.). Hauppauge,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4), 347-365.
- Tomlinson, C. A. (2004). Differentiation in diverse settings. *School Administrator*, 61(7), 28-33.
- Winner, E. (1997).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Abstract =

The Realities of the Differentiated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 and Support Need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Hyun Ji Lee

Soongsil University

Jin Mi Tae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researching the current condition of differentiated education on gifted infants and a demand for support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gifted infa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and principals in infant education institutions including kindergartens, day care centers and other institutions(English kindergartens and playing school)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and total 30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Result first,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kindergartens, day care centers and others lacked infra for differentiated education for gifted infants. Especially in 'the experience of differentiated education' for gifted infants, the three institutions showed a lower level than the normal level. Second, the teacher's demand for differentiated education for gifted infant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remarkably lower than the required level in all three institutions. The study expects that it could be used as the basic standards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realization of customized and differentiated education that meet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demands for gifted infants in regular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Differentiated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6년 8월 15일
수정원고접수: 2016년 9월 19일
최종게재결정: 2016년 9월 20일